



원로의원 혜정대종사 영결식이 지난 16일 삼각산 도선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삼각산은 호랑이를 잃고...”

도선사에서 혜정대종사 영결식 봉행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당 혜정대종사의 영결식이 지난 16일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한 영결식에는 원로의원 범흥·현해·혜승·월서·명선·진제스님 등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회의장 보선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법전 종정예하하는 (진제스님이 대독한) 추모법어를 통해 “대종사의 임적은 생명이 없는 본분을 나투는 일이고, 오고감이 없는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 본분자리에는 인연 따라 모습을 나투는 자 재함이 있고 응화(應化)의 무궁함이 있다. 형상을 의지해 모습을 나

투면 혜정대사요 몸을 바꾸어 적멸(寂滅)을 이루면 공적(空寂)하고 응연(凝然)하다”고 애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후학들에게 언제나 수행자의 위의를 잃지 말고 시은은덕과 근검절약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며 “북한산 문수굴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린스님께서 떠나시니 삼각산은 호랑이를 잃고 종단은 린스승을 잃었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치고 혜정대종사의 법구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로 이운되어 다비식을 가졌다. 스님의 49재는 오는 12월30일 도선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태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현지 파견

50년 만의 최악의 홍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에 한국 스님과 불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단장 혜경스님·사회

생 많겠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원봉사단은 항공로 등 모든 비용을 자부담해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불자들이 아름다운운행을 통해 보시한 기금이 전액 구호활동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품 마련을 위해 세계 불교도우의회(WFB) 측에 건넨 1억원도 공익법인 아름다운운행이 긴급재난구호기금을 조성해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봉사자 땀행복치유센터장 선영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발 빠르게 선발대를 파견하고 봉사단도 구성하는 등 시의적절 하게 도움을 보태 다행”이라며 “뜻 깊은 발걸음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 학인스님들이 나서 지난해 창립한 ‘니르바나 승가봉사단’ 스님들도 활동에 동참했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단장으로 한 봉사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동안 활주로 침수로 폐쇄된 방콕 북부 돈므앙 공항 부

근과 물에 잠긴 톤부리 지역 등에서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달한다. 이번 봉사활동에 함께 할 WFB에 1억원의 성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구호소도 위로 방문한다. 태국은 지난 7월 말부터 중·북부 지역에서 계속된 대홍수로 564명이 숨졌으며, 유·무형의 경제손실은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출발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발대식을 갖고 태국의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논산훈련소 신축 힘 모으자

조계종 균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스님)는 오는 30일 오후6시 서울 부림동 AW컨벤션센터에서 ‘제43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및 국군불교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육해공군 군승 및 군불교 후원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는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 모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념공연을 갖고 지난 1년간 격오지 등을 돌며 군포교에 매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10시에는 국방부 법당 원광사에서 순직군승 추모재를 봉행한데 이어 전체 군승이 참여한 가운데 ‘군 포교와 전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30일, 제43회 군승의 날
국군불교후원의 밤 개최

2012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12월 14일 마감 www.ibulgyo.com

인터넷 불교신문의 모든 것!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홍보자료
www.ibulgyo.com
모바일
m.ibulgy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bulgyo
트위터
twitter.com/ibulgyo

종정추대회의 12월14일 소집

제13대 조계종 종정예하를 추대하기 위한 ‘종정추대회의’가 오는 12월14일 소집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오는 12월1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대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오는 2012년 3월25일 현 법전 종정예하의 5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열리는 이번 종정추대회의는 원로회의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이 참여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정예하를 추대한다.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예하는 승남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행해가 완만한 비구 등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임기는 5년이며 1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전계대화상 위촉권을 가지며 종헌준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박인택 기자

지면안내

통도사 40번째 화엄삼일 5면
국가안전위원회와
보광스님이 만났다
그심도 있는 이야기 7면
“종교, 불교로 승부하라” 8면

‘조계종지 현대적 구현’ 23일 불교종흥 대토론회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하는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11월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오후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대승사 주지 학답스님이 발제자로 참석해 ‘조계종지(曹溪宗旨)의 현대적 구현’을 주제로 발표한 다. 이어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 종광스님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광스님, 진불선원장 설우스님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벌인다. 허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90218-증-4804호
현대 난치병 치료에 도전하는 한의사 서효석원장

‘폐’를 살려 아토피·비염·천식 치료

“내 폐는 지금 건강한가?”

서효석 원장이 한의학도였던 38년 전 당시 자신도 자주 앓던 편도선염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라는 점과 ‘수술로만 고칠 수 있다.’ 등이었다. 그러나 편강한의원의 한약이 세상에 선보이게 되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서원장의 오랜 임상경험을 통한 편강한의원의 한약치방은 오랜기간 임상경험을 통해 얻어진 ‘편도선염 치료’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200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원장은 단순 편도선염의 치료에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처방이 감기, 비염, 아토피 환자 등에서 효과와 반응을 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감기가 편도선염과 비염 등을 유발

하는 상호 연관 관계가 있다는 보편적 의견에서 설득력을 얻어 편강한의원의 한약은 편도선염 환자뿐 아니라 감기, 비염, 아토피 환자들에게 약의 효과로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폐의 자가치유능력’에 착안 면역력과 자가치유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중 하나이다. 특히 자연의 기를 받아들이는 폐의 기운을 높여주면 편도선염이나 비염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폐의 기운을 복돋아 면역력과 자가치유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편강한의원의 한약은 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해서 그 활발해진 폐의 기능이 바로 호흡기 전부를 강화시켜 감기와 편도선염을 예

방하고, 비염을 퇴치하며, 아토피 등 각종 고질병들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폐의 기능에 폐활량을 증가 시킴으로 임파구가 활발해져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하여 여드름, 기미, 검버섯 등 고질적인 증상에도 효과가 좋다. ◆폐 기능 강화로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감기를 시작으로 기관지염, 비염,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축농증, 인후염, 중이염, 결막염, 후두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폐기종 등 다양한 질병으로 전이된다. 감기는 면역력의 약화로 생기는 질병이다. 생체계가 내부에서 면역력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을 ‘원기(元氣)’라고 한다. 원기는 생명의 탄생과 활동의 전제

면역력과 자가치유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 감기는 만병의 근원 기관지염, 비염, 폐렴 등 다양한 질병으로 전이될 수 있어

조건인 대기(大氣)와 천연물(天然物)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명의 원천인 대기를 받아들여 인체에 전해 주는 ‘폐’의 역할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편강한의원의 한약은 ‘폐’의 원기를 복돋아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해주는

증류한약이다. 초기에 편도선염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한약은 임상시험결과 편도선염뿐만 아니라 코감기, 비염, 천식, 감기예방,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섬유화, 기미, 여드름, 아토피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한약 맞아요?” 이 한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첫 마디는 바로 “이제 한약 맞아요?”이다. 외형상 편강한의원의 한약은 쓰고 있지 않다. 쓴 맛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 복용자들도 쉽게 약을 접할 수 있고, 술, 담배 등 기피음식이 적은 편이기에 다른 한약과 달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02)518-7777

편강한의원